

항공기상청, 2022년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 항공기상서비스 혁신 성과 인정받아 2년 연속 최우수(S등급) -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S등급)에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2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평가대상 44개 기관 중 항공기상청 등 총 7개 기관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다. 항공기상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항공기상청은 ‘예·특보 역량향상을 통한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 ‘종합적 위험기상 감시로 항공안전 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항행 의사결정 지원’,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을 4대 전략 목표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여는 세계 일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에는 기상청 내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난류, 급변풍 등 항공기상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재난대응현장 지원을 위한 저고도 소형 항공기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기상 대응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수치예측모델 기반의 군공항 이륙예보 자동화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상정보 자동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혁신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작년에 착수한 차세대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의 전담조직인 차세대 항공기상팀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 제주공항 급변풍 탐지장비

도입예산을 확보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경로상에 발생하는 급변풍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에 대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 제공과 서비스 혁신의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며,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기관역량 향상에 집중하여 보다 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32-222-3001)
		담당자	사무관	남숙영 (032-222-3040)

